

러시아 제노포비아의 실태와 원인 분석*

고상두**

김예슬***

| 목 차 |

I. 서론	IV. 러시아 제노포비아 현상의 원인
II. 제노포비아에 관한 이론적 고찰	V. 결론
III. 2000년대 러시아 제노포비아의 실태	

| 논문요약 |

러시아 연방은 외국인 혐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을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 내 제노포비아 현상이 두드러졌다. 본고는 러시아 제노포비아의 급증 요인을 경제난이 클수록 제노포비아도 커진다는 불행이론, 타민족 인구가 늘어날수록 제노포비아의 정도도 커지게 된다는 집단갈등이론, 그리고 정치 엘리트의 언행에 따라 제노포비아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엘리트선동이론 등 세 가지 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지니 계수가 높아진 점을 보았을 때, 러시아 제노포비아의 발생 요인으로 불행이론(경제적 요인)이 적합하며, 집단갈등이론(인구적 요인)은 외국인 유입이 크게 줄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에서는 크게 설득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푸틴 정부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엘리트선동이론(정치적 요인)이 강화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30-B00003)

**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석사과정.

▪ 주제어 : 러시아, 제노포비아, 푸틴, 엘리트 선동 이론, 외국인혐오증

I. 서론

러시아는 인종주의가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Osipov 2010, 50). 러시아 소바 센터(SOVA Center)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연간 1천여 건에 달하는 인종혐오, 외국인 혐오범죄가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졌다.¹⁾ 물론 외국인 차별의 문제는 어느 국가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서, 외국인은 구직이나 주거 문제 해결이 어렵다거나, 차별적 언사를 듣게 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이런 양상이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레바다 센터(Levada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1989년에는 약 20%의 러시아인들이 외국인 혐오증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50-60%로 증가하였다.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70%에 달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인종주의가 강한 구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유럽지역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외국인 혐오증의 2-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Shlapentokh 2007, 135-136).

국가 간 인구 이동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세계화의 시대에 이러한 외국인 혐오 현상은 인권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게다가 러시아에는 유학생 포함하여 우리 교민이 전국적으로 21만 여 명, 그리고 모스크바에만 약 3천 여 명이 살고 있다.²⁾ 2007년 이후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러시아 현지 유학생들이 피격당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러시아의 제노포비아 문제는 단순한 외국의 사정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치안 문제와도 연관되는 중대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교민 보호 정책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

1) SOVA Center,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 폭력 범죄 통계. <http://www.sova-center.ru/en/xenophobia/reports-analyses/2007/05/d10896>. (2011년 12월 29일 검색)

2)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정책 및 현황,” 2010. 12. http://www.mofat.go.kr/travel/overseascitizen/index.jsp?mofat=001&menu=m_10_40. (2011년 12월 30일 검색)

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제노포비아 현상을 예방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러시아의 제노포비아 현상, 특히 푸틴이 집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그 빈도와 강도가 높아진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원인을 경제적 요인, 인구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후 러시아 제노포비아 현상의 최대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II. 제노포비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노포비아란 낯선 것 혹은 이방인이라는 의미의 ‘제노(xeno)’와 싫어한다는 뜻의 ‘포비아(phobia)’가 합성된 말로서 외국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비이성적인 혐오 혹은 증오를 뜻한다.³⁾ 페인(Pain 2007)은 제노포비아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든 혹은 선동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발되는 집단의식의 발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히점(Hjerm 1998)은 정체성이 다른 개인 혹은 집단에게 행하는 명예 훼손적 행위라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제노포비아는 민족주의와 관계가 깊다 하겠다. 왜냐하면 민족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른 집단과의 비교로부터 발생하고,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노포비아적 현상에 속하기 때문이다(Herrera 2011, 3). 한편 김세균(2006, 17)에 의하면 ‘우리(동질성)’와 ‘그들(이질성)’을 구분하는 집단 심리가 제노포비아의 발생 근거가 되고, 이 ‘다르다’는 의식이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자를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제노포비아는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를 위하여 타자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의식에서 발현된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범주에 민족적 러시아인(Русский)을

3) xenophobia. Dictionary.com Unabridged. Random House, Inc. <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xenophobia>. (2012년 1월 3일 검색)

제외한 모든 민족 구성원을 포함한다.

제노포비아의 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을 루빈(Rubin 2009)은 불행 이론(Misery Theory), 집단갈등 이론(Group Conflict Theory), 그리고 엘리트 선동 이론(Elite Incitement Theory)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첫째, 불행이론이란 제노포비아가 활성화되는 곳은 경제적인 불행, 즉 실업과 같은 절대적 불행이나 부의 불평등과 같은 상대적 불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불행이론의 설명요인 중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설득력 있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노포비아를 촉발하는 경제적 요인으로써 국가경제의 침체가 주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게 되면 상당수의 개인들은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서 심리적 불안정과 동요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제노포비아적 행동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이슬기 200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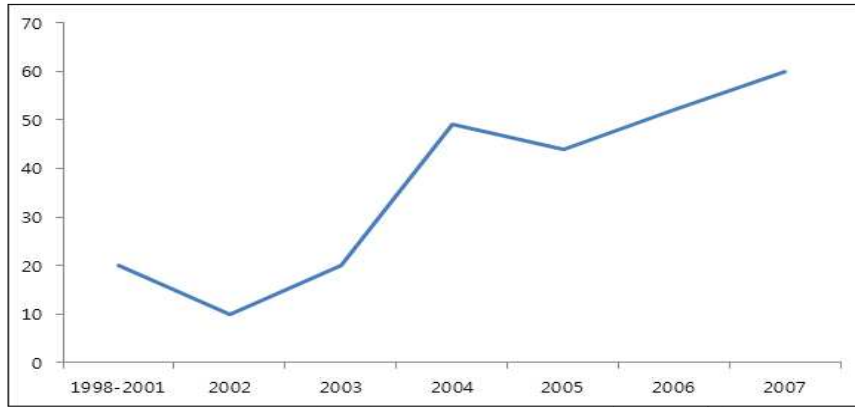
둘째, 집단갈등 이론은 외국인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하여 인구 구성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곳에서 제노포비아도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하르딘(Hardin 1995, 142)에 따르면, 가용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원배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집단이 생기고, 주류집단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주류집단에 대한 대항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집단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루빈과 벤트(Rubin and Wendt 2009, 10-11)는 이 이론을 제노포비아에 적용하여, 주류집단이 인구 감소로 인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힘과 지위가 위협 받게 되었다고 인지할 경우 제노포비아가 활발해진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외국인의 존재가 토착민의 헤게모니에 위협적이 될 때 제노포비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엘리트 선동 이론은 정치 엘리트가 제노포비아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폭력성을 감싸는 언급을 할 때, 혹은 제노포비아 범죄에 정치 엘리트가 연루되어 있을 때 제노포비아가 급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왓츠(Watts 1996, 98-99)는 외국인에 대한 공포와 외국인에 의한 잠재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제노포비아 현상이 강화 혹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Ⅲ. 2000년대 러시아 제노포비아의 실태

2004년 2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9살의 타지키스탄 소녀가 10대 청소년 10여 명으로부터 흉기로 난자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2월 말에는 러시아 서남부 보르네즈 지방에서 아프리카 서부 연안의 국가인 기니비사우 출신 유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였다. 3월 중순경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스킨헤드 일당이 시리아 유학생을 떠밀어 전동차에 치어 죽게 한 사건이 있었으며, 같은 달 하순 모스크바 시내에서 아프가니스탄 유학생이 스킨헤드 1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4월 초 모스크바 동남부에 위치한 볼고그라드에서 청년 50여 명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상인을 몽둥이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이 2004년 초에만 매달 두 건 이상의 제노포비아 범죄가 신문 보도에서 다루어졌다(『연합신문』, 2004년 4월 7일).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범죄가 모두 기사화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통해 정확한 제노포비아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공식자료를 토대로 러시아의 제노포비아에 관해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한결같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노포비아 범죄가 급증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 정서도 악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Panfilov 2006; Shlapentokh 2007; Verkhovsky 2007; Alexseev 2010; Schenk 2010). 전 러시아여론연구센터(VTsIOM)의 자료에 따르면, 1989년의 경우 소련 인구의 20%가 제노포비아의 징후를 보였는데 1990년대 말 체첸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러시아의 제노포비아는 견잡을 수 없이 증가하였고, 2000년 이후부터는 '다른' 형태의 혐오증이 등장하여, 눈에 띄게 그 수치가 증가하였다(Pain 2007, 896). 또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루빈과 벤트(Rubin & Wendt 2009, 5)는 SOVA센터의 통계 자료들을 토대로 외국인 혐오 범죄가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그들이 조사하여 만든 그림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도시인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범죄 건수이다. <그림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노포비아 범죄가 최근 5-10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 러시아의 제노포비아 범죄 (사망건수)

출처: Gabriel Rubin & Christopher Wendt(2009), "Explaining Increases Xenophobia in Post-Communist Russia,"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Toronto, Canada, p. 5.

러시아 양대 도시에서 외국인의 사망을 초래한 중대 범죄에 관한 통계를 보여주는 <그림 1>에 의하면, 제노포비아 범죄는 2002년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2005년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7년까지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제노포비아 현상은 2002년 이후 최근까지 증가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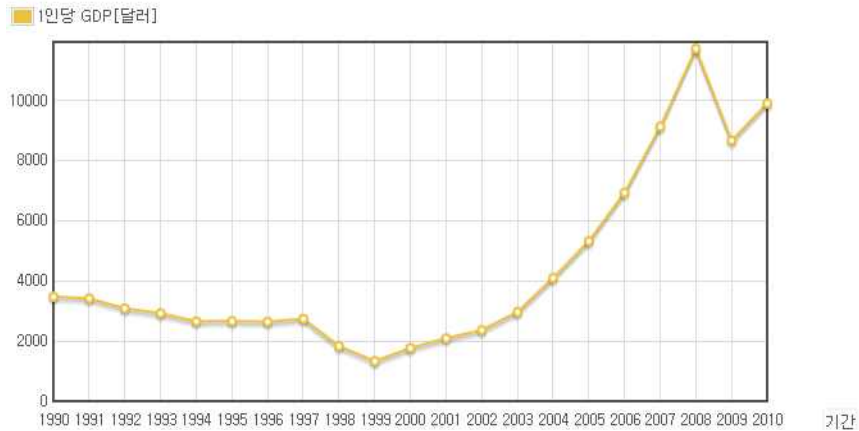
IV. 러시아 제노포비아 현상의 원인

1. 경제적 요인

불행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질 때, 심리적 박탈감의 표현이 제노포비아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이론은 2008년 러시아의 경제 위기 때, 제노포비아 범죄가 4배나 증가했다는 러시아 당국의 발표를 볼 때 러시아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설명력 있는 이론으로 생각

할 수 있다(최아영 2010, 9).

그러나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적 흐름을 보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증하게 된 제노포비아 현상을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 국민의 1인당 GDP는 1990-1999년의 기간 동안 매우 낮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 가도에 오르고 있다. 1인당 GDP 금액에 있어서 1990년대와 2000년대는 큰 차이가 나고, 비록 2008-2009년에는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1인당 GDP가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1990년대의 1인당 GDP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2000년대의 경제 활성화는 이 시기에 확연히 증가한 제노포비아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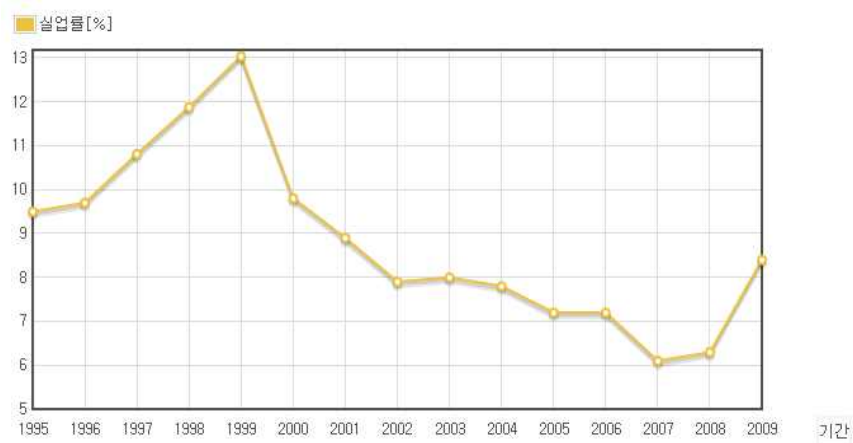


<그림 2> 러시아 1인당 GDP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DB』 www.kosis.kr. (2012년 1월 9일 검색)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의 실업률을 확인해 볼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3>은 1995년에서 2009년까지의 실업률 통계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증가하던 실업률은 1999년 정점에 달한 후 2000년대에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2008년의 세계경제 위기로 인

하여 잠시 실업률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1990년대와 같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제노포비아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실업의 증가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 증대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실제 러시아의 경우에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급증한 2000년대에 실업률은 감소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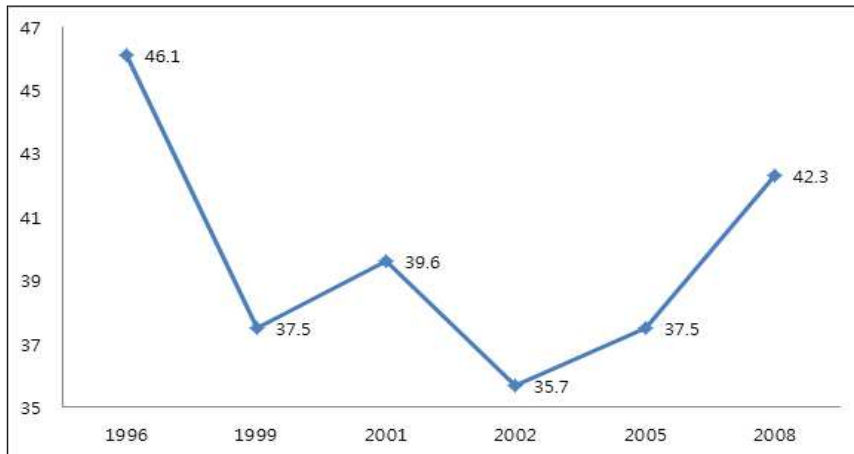


<그림 3> 러시아의 실업률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DB』 www.kosis.kr. (2012년 1월 9일 검색)

1인당 국민소득과 실업률은 절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그런데 주로 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된 경제지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의 소득 불평등이 제노포비아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러시아의 지니계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완전한 소득불평등은 100, 완전한 소득평등은 0으로 표시하는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1996년에 지니계수가 46.1 이었으나 1999년에는 37.5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대 초반에는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2년 기점으로 지니계수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42.3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수치 변화를 볼 때, 러시아 국민의 소득배분은 199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에 상황이 개선되기는 하였지

만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다시 불평등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제노포비아가 2000년대에 급증한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러시아의 지니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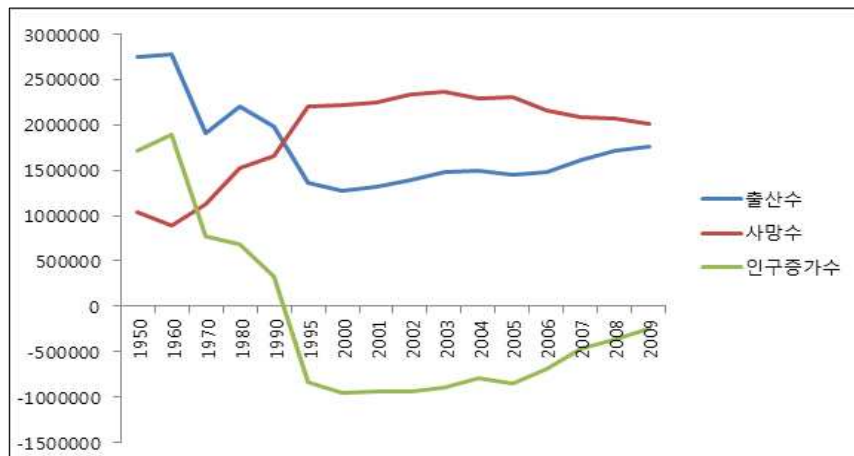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GINI>. (2012년 1월 9일 검색)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노포비아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적 요인 중에서 1인당 GDP나 실업률 등과 같은 절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경제 지표들은 그 설명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를 볼 때, 소득 배분의 불평등과 러시아의 제노포비아 범위가 동조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요인 중에서 소득 불평등이 제노포비아를 불러일으키는 발생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구적 요인

집단 갈등 이론은 한 영토 내 소수민족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류민족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 방어적 적대심을 나타내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자신들이 점하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타민족 구성원들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다(Hjerm & Nagayoshi 2011, 817-818).



<그림 5> 러시아의 인구 증감률

출처: 러시아 통계청, Рождаемость, смертность и естественный прирост на селения, <http://www.gks.ru>. (2012년 1월 9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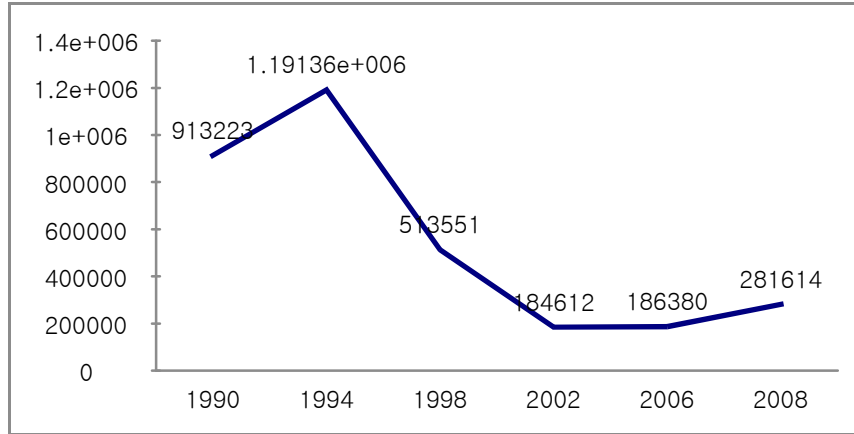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인구의 자연적 감소를 심각하게 겪은 나라이다.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0년을 기점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10년간 인구가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2009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출산과 사망이 비슷해지면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크게 증가한 실업, 이혼, 자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를 이주자 유입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CIS 국가의 이주자들은 비자 없이 러시아로 올 수 있게 해주는 등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사실 이 이민 인구 중에는 CIS에 흩어져 있다가 돌아오려고 하는 러시아인의 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⁴⁾ 이러한 이민정책으로 러시아는 2000년까지 지속된 인구

감소를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부터 이민자의 민족 구성 중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줄어들었다. 2001년 260만 명이었던 러시아인 이민자 수가 2004년에는 180만 명으로까지 감소하였고, 러시아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잠재적 이주민 중에서 러시아인의 비율은 50%에서 42%로 감소하였다. 이런 현상은 점점 더 많은 비 러시아인들, 특히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 지역에서 오는 이민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Mukomel 2005, 334-335). 그러므로 2000년대 러시아로 유입된 이민자들의 민족 구성의 변화, 그리고 러시아 내 소수 민족그룹의 확산 등이 주류 러시아인들에게 위협으로 인지되어 제노포비아가 급증한 것이라는 설명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림 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러시아로 이주해 오는 외국인 인구는 1994년을 정점으로 한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 수에 있어서 1994년의 110만 명에서 1998년에 51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2002년에는 약 1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미 러시아에 들어와 정주하고 있는 이민자 집단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이주자 유입규모가 2000년대에 급감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급증한 제노포비아 현상을 이주자 유입문제로만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하겠다.

4) 본 연구에서의 러시아인이란, 러시아 국민[россиянин]이 아니라 슬라브계통인 민족적 러시아인[русский народ]을 의미한다. 비러시아인은 러시아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 구성원들을 지칭한다.



<그림 6> 러시아 유입 외국인 수

출처: 러시아 통계청, Общие итоги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http://www.gks.ru>. (2012년 1월 9일 검색)

그리고 러시아 당국의 2002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다민족국가인 러시아에서 러시아인은 1억 1600만 명으로서 전체인구의 79.8%를 차지하고 있고, 타민족은 19.2%에 불과하며, 그나마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분산되어 있다. 비 러시아인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타타르 민족이 전체 인구의 약 3.83%를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와 가장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체첸인은 총인구의 약 0.94%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로 보았을 때, 소수민족의 존재가 중대한 위협을 줄만한 규모는 아닌 것이다.⁵⁾

그러므로 타민족이 러시아로 현재까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체노포비아를 인구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타민족 이주자의 규모가 크지 않고, 또한 그들의 유입 규모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하겠다.

5) 러시아 인구통계자료. <http://www.perepis2002.ru/content.html?id=11&docid=10715289081463>. (2012년 1월 9일 검색)

3. 정치적 요인

(1) 푸틴의 제노포비아에 대한 기본인식

엘리트 선동 이론은 정치 엘리트의 자극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해 제노포비아가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의 경우 푸틴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푸틴은 1999년에 총리로 실권을 장악하였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으로서 최고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그 이후 총리로 물러나면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이중권력체제를 형성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러시아는 초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⁶⁾

이러한 맥락에서 푸틴이 집권한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공식 발언 중에서 제노포비아와 관련된 언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⁷⁾ 푸틴의 연설문 모음 사이트에서 제노포비아를 검색어로 입력했을 때 총 136건이 검색되었고, 이 모든 문건에서 푸틴은 제노포비아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2001년 TV 방송 중 대통령과의 핫라인 통화에서, 한 시민이 모스크바에서 아제르바이잔인이 살해당한 사건과 불가 공화국에서 러시아 정교에 반대하는 외국인 폭력시위에 대하여 대통령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이에 푸틴은 다민족국가인 러시아에서 민족간의 평화공존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에 속한다고 답하면서, 타민족 혐오든 러시아인 혐오든 모든 형태의 혐오감을 없애는 데 노력해야 하며,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정부 기관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였다.⁸⁾

6) 초대통령제에 대해 이홍섭(2001)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정치과정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될 경우 대통령이 조정자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현 권력구조를 ‘초대통령중심제’(superpresidentialism)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홍섭(2001), “러시아의 초대통령중심제 : 등장 배경, 성격 및 파급효과,” 『국제정치학회』, 제41집, 제2호, pp. 251-270.)

7) 전임 러시아 대통령 연설문은 http://oldsearch.kremlin.ru/kremlin_en에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유사한 의견은 2007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피력되었다.⁹⁾ 러시아 TV 프로그램 베스치(Vesti) 뉴스의 로쉬코프(Rozhkov) 기자가 러시아에서 민족주의, 인종주의, 제노포비아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푸틴의 의견을 물었을 때, 그는 소련 붕괴 이후 이데올로기의 진공상태, 러시아의 주류 집단인 러시아 민족의 좌절감 그리고 방향성의 상실 등에서 기인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그는 정부기관의 적절치 못한 대응을 시인하면서도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음을 내비치며, 그럼에도 정부, 언론,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처럼 푸틴은 러시아의 제노포비아를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따라서 제노포비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치적 제스처라고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즉, 그가 제노포비아 문제를 해결하지는 언급에 비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는 것이다(Yaffa 2006, 18-19). 이러한 맥락에서 판필로프(Panfilov 2006, 142-143)는 제노포비아를 푸틴의 비공식적 이데올로기라고 지적한다.

(2) 체첸 분리주의와의 전쟁

푸틴은 체첸 분리주의자들과의 전쟁을 위해 러시아의 제노포비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시기에 러시아의 제노포비아 현상은 급증하였다.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로서 민족적 결속력이 약화되면 국가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중요한 국가과제이며, 분리주의 운동을 어떻게 막아내는가는 지도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련 붕괴 직후, 엘친 집권기 러시아는 지방의 세력이 크게 성장하였고

8) Excerpts from a Transcript of a TV and Radio Broadcast(Hotline with the President of Russia). http://archive.kremlin.ru/eng/speeches/2002/12/19/0000_type148987_154703.shtml. (2012년 1월 11일 검색)

9) Transcript of Press Conference with the Russian and Foreign Media. http://archive.kremlin.ru/eng/speeches/2007/02/01/1309_type82915type82917_117600.shtml. (2012년 1월 11일 검색).

소수민족들의 분리 열망이 거셌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엘친은 그들의 자율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정책을 펼침으로써 러시아 연방의 붕괴를 막아내었다(Thumann 2001, 196-197).

이와 달리 푸틴은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단행함으로써 연방 붕괴를 막음과 동시에 국가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소수민족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소위 ‘대러시아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다수 러시아인을 결집시키며 소수민족을 주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푸틴은 제노포비아적인 함의가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러시아 영토 내 소수민족의 분리운동을 좌절시키고, 러시아를 강한국가 결속체로 발전시키고자하는 의도를 보였다(Thumann 2011, 197).

이러한 차원에서 푸틴은 여타 소수민족, 특히 체첸인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그는 가령 체첸에 대해 “강도, 깡패”라고 부르면서 “화장실에 몰아넣고 전멸시켜버리겠다.”고 공언하였다(Wood 2001). 또한 2003년 체첸 분리주의자들의 자살 폭탄 테러 사건 직후, “그들을 지하 은신처에서부터 끄집어내어 몰살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BBC, 2003년 7월 7일).

체첸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강경 발언은 그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보여줌으로써 분리주의 세력을 위협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러시아 민간인 사상자가 생긴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가 수장으로서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다민족 국가의 수장이기 때문에 더 정제된 표현을 했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은 국가 내 제노포비아 범죄를 용인하고 부추길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Rubin and Wendt 2009, 14).

(3) 비 러시아인 제한을 위한 이민법 강화

2007년 1월 15일, 러시아인은 받아들이지만 CIS 국민들은 제한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즉, “러시아인을 위한 러시아”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책인 것이다. 개정된 이민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7년 전까지 CIS 국민들은 비자 없이 러시아에 입국이 가능하였

으나 이 개정안의 발효로 이민자 할당제가 도입되었다. 게다가 이민쿼터는 매해 감소하여 2007년의 600만 명에서 2010년에는 13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거주등록과 근로 허가절차를 매우 복잡하게 바꾸어 놓았다. 가령 2007년 이전까지는 단기 거주자의 경우 근로 허가가 필요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꼭 허가를 받도록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입국 후 3일 안에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3일이라는 시간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하기 어렵다. 그리고 병력이 기록된 증명서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약 500달러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턱없이 높은 관문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등록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Schenk 2010, 105-107).

사실 다수의 러시아 학자들이 인구학적 상황을 감안하여 비 러시아인의 이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Andrienko, 2005; Ioffe and Zayonchkovskaya, 2010). 러시아의 대표적 NGO단체인 유라시아 문화유산재단(Eurasia Heritage Foundation)은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여 귀화시키는 것만이 러시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Gradirovsky et al. 2006).

하지만 푸틴은 2006년의 의회 연설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그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를 염려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러시아 동포들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비 러시아인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¹⁰⁾

그러나 러시아 '동포'를 받아들이기 위해 개정된 이민법이 실행되고, 5만 여 명이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그에 턱없이 못 미치는 2천 명만이 이주해왔다. 즉,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이민 정책은 민족주의적이며 제노포비아 경향을 지닌 정책 입안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러시아 레바다 센터의 조

10) Putin(2006), "Speech at the Council of Legislators Session," 12. 21. http://archive.kremlin.ru/eng/speeches/2006/12/21/2307_type82912type82913type84779_115810.shtml. (2012년 1월 12일 검색)

사에 의하면 정부의 정책입안자 중에서 비 러시아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73%에 달한다. 이러한 양상은 군, 경찰 등과 같은 국가안보 관련 엘리트들에게도 만연한 실정이다(Pain 2007, 900-901).

정치엘리트에게 제노포비아적 정서가 널리 확산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러시아 사회를 내부적으로 단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치적 확신 때문이다. 내부단결을 추진력으로 삼아 국가의 발전을 제시한 구호가 바로 ‘강한 러시아의 재건’이다(Shlapentokh 2007, 137).

러시아의 경우 소련 붕괴 직후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고, 이것은 정치적 극단주의가 발현하게 되는 토양이 되었다. 그리고 안정적인 국가건설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위해 제노포비아는 하나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었다. 푸틴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줄곧 ‘강한 러시아’라는 구호를 내세워 왔다. 그는 이 ‘강한 러시아’라는 수사로 2012년의 대선에서도 승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강한 러시아와 함축적 연관성을 가진 제노포비아는 러시아에서 정치권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미디어의 정치적 활용

러시아의 정치엘리트는 제노포비아 현상을 특히 미디어를 통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방송현실을 보면 국영 방송은 거의 정부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고 있고, 민영 방송일지라도 소유주가 군 혹은 비밀경찰 출신의 실로비키가 다수이다. 푸틴은 엘친시대의 자유로운 언론환경을 되돌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푸틴에게 비판적이었고 도전하였던 미디어 올리가르히인 구신스키의 <미디어 모스트> 계열사를 해체시킨 일이다(『동아일보』, 2000년 6월 14일). 뒤이어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의 ORT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ORT는 푸틴 집권 초기에 친푸틴 성향으로 푸틴을 지지하였으나, 베레조프스키가 푸틴과 정치적 결별을 하게 되면서 크레믈린에 의해 접수되었다.

러시아 언론의 제노포비아적 보도태도는 자주 나타나고 있다. 비근한 분석사례는 2007년 여름 러시아 남부의 스타브로폴이라는 지방에서 발생한 민족 간 폭력 분쟁에 대한 언론 보도이다. 체첸 학생과 러시아 학생 간의 싸움에서 발단된 이 폭력사태를 다룬 러시아 전국지와 지역신문 40개에서 149개의 기사를 내용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기사가 민족적인 보도 프레임을 사용하였으며, 이민자들과 소수 민족에 대해 자극적이며 부정적인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민족성을 부각하며 설명하였다. 또한 기사 내용의 양적 측면에서도 러시아 학생의 측근 인터뷰, 그의 생애와 장례식 등을 보도해주는 등 러시아인에게 더 많은 할애를 하고 있었다(Schenk 2010, 110-119).

또 다른 사례는 2005년 11월 4일, 극우 조직들의 모스크바 시내 행진이 일어났던 날에 크렘린이 언론사들에게 뉴스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용어 목록을 제공한 일이다. 이 목록은 외국인에 대하여 중립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테러리스트, 폭력배 등으로 바꿔 지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¹¹⁾ 언론이 보내는 메시지가 타민족이나 외국인에게 친화적이라기보다는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며 보도, 기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행보는 정부가 제노포비아를 비공식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러시아 내 제노포비아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경제적 요인, 인구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검토해 보았다. 첫째, 경제적 요인은 불행 이론의 틀을 가지고 확인해 보았다. 불행이론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곳에서 제노포비아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

11) 용어 변경을 요구한 정부 발표 목록은 Panfilov(2006), "Rebirth of Russian Nationalism," *Index on Censorship*, Vol. 35, No.1, pp. 142 - 143.에 수록되어 있다.

이론은 2000년대 러시아의 1인당 GDP를 통해 알 수 있는 생활수준 증가, 그리고 실업률 감소 추이를 볼 때 타당한 설명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서 감소추세였던 지니계수가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므로 경제적 요인 중에서 소득 불평등이라는 요소는 러시아 제노포비아의 발생요인으로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인구적 요인은 집단 갈등 이론의 틀로 확인하였다. 이 이론은 제노포비아가 발생하는 배경으로서, 소수 민족의 수가 증가할수록 다수 민족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리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결국 소수 민족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게 된다고 본다. 러시아의 현실을 살펴보았을 때, 2000년 이후부터 러시아로의 유입 이민자 중 비 러시아인의 비율이 약간 증가했을 뿐이고, 유입 인구의 실질적인 숫자는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종전의 50%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총인구에서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분산적이어서 러시아 주류민족에게 실질적인 위협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인구적 요인은 러시아의 제노포비아 급증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정치적 요인은 엘리트 선동 이론의 틀에서 살펴보았다. 이 이론은 정치 엘리트의 자극에 의해 사회 내 제노포비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한다. 러시아의 경우 2000년에 집권한 푸틴 대통령이 분리주의 세력, 특히 체첸 반군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러시아인만을 받아들이기 위한 민족주의적 이민법 개정, 국가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정권 획득 수단으로 이용된 정치 수사 등에서 제노포비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러시아의 제노포비아 현상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정치적 요인에 의해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릇된 여론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정치 엘리트들은 제노포비아 현상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가 정체성 강화와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미디어를 통하

여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Shlapentokh 2007, 137). 소수집단이 생기는 것, 그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사회 분위기는 크게 바뀔 수 있다. 긍정적이게도, 국내외에서부터 높아지는 자유주의자들의 비판, ‘스킨헤드의 국가’라는 오명을 갖게 됨으로써 낮아지는 국가 브랜드 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제 소련의 붕괴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국면임을 생각했을 때, 팽배할 대로 팽배해진 외국인 혐오증을 러시아 사회가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가 된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지만, “국내 취업난”을 명분으로 하여 최근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를 도입하여 허가인원을 2008년의 6만 800명에서 2009년부터는 1만 3000명으로 줄이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면서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조선일보』, 2011년 1월 13일).

그러나 이런 실정에 모순되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체노포비아적인 목소리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인터넷 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점차 집단화, 조직화되어 2011년 6월경에는 다문화를 미화했다며 KBS 방송국 앞에서 집단행동을 벌이기까지 하였다(『동아일보』, 2011년 7월 26일). 이제 한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기류인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정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체노포비아 현상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정치적으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김세균 외(2006).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화과학사.
- 이슬기(2008). “푸틴 시기의 제노포비아에 대한 연구: 민족주의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섭(2001). “러시아의 초대통령중심제: 등장 배경, 성격 및 파급효과.” 『국제정치논총』. 제41집. 제2호, pp. 251-270.
- 최아영(2010). “현대 러시아 스킴헤드에 대한 단상.” 『러시아 지역정보지』. 제1권. 제2호, pp. 6-11.
- Alexseev, Mikhail A.(2010). “Majority and Minority Xenophobia in Russia: The Importance of Being Titulars.” *Post-Soviet Affairs*. Vol. 26. No. 2, pp. 89-120.
- Andrienko, Yury(2005). “Understanding Migration in Russia.” *CEFIR Policy Paper Series*. <http://ecosoc.org.au>. (2011년 12월 9일 검색)
- Gradirovsky, Sergei, Tatiana Lopukhina, Nikita Mkrchian, Olga Vykhovanets, Dmitry Zhitin(2006) “The Policy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in Russia: Present State and Prospects”. *Eurasia Heritage Foundation*.
- Hardin, Russell(1995) *One for All: The Logic of Group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rrera, Yoshiko M.(2011). “National Identity and Xenophobia in Russia: Opportunities for Regional Analysis.” <http://ir.uiowa.edu>. (2011년 10월 3일 검색)
- Hjerm, Mikeal(1998). “National Identities, National Pride and Xenophobia: A Comparison of Four Western Countries.” *Acta Sociologica*. Vol. 41. No. 4, pp. 335-347.
- Hjerm, Mikeal & Kikuko Nagayoshi(2011). “The Composition of the Minority Population as a Threat: Can Real Economic and Cultural Threats Explain Xenophobia?.” *International Sociology*. Vol. 26. No. 6, pp. 815-843.

- Ioffe & Zayonchkovskaya(2010). "Immigration to Russia: Inevitability and Prospective Inflows."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Vol. 51. No. 1, pp. 104-125.
- Koopmans, Ruud(1996). "Explaining the Rise of Racist and Extreme Right Violence in Western Europe: Grievances or Opportunit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30. No. 3, pp. 185-216.
- Mukomel, Vladimir(2005). *Migratsiya v Rossii: Postsovetkiye konteksty*. Moscow: Institut sotsiologii RAN.
- Osipov, Alexander(2010). "Ethnicity, Discrimination, and Extremism in Russia."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57. No. 2, pp. 50-60.
- Pain, Emil A.(2007). "Xenophobia and Ethnopolitical extremism in Post-Soviet Russia: Dynamics and Growth Factors." *Nationalities Papers*. Vol. 35. No. 5, pp. 895-911.
- Panfilov, Oleg(2006). "Rebirth of Russian Nationalism." *Index on Censorship*. Vol. 35. No. 1, pp. 142-148.
- Rubin, Gabriel(2009). "Explaining Increases in Xenophobia in Post-Communist Russia." The 2009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Toronto. Canada.
- Schenk, Caress(2010). "Open Borders, Closed Minds." *World Affairs Institute*. Vol. 101, pp. 101-121.
- Shlapentokh, Vladimir(2007). "The Hatred of Others: The Kremlin's Powerful but Risky Weapon." *World Affairs*. Vol. 169. No. 3, pp. 134-141.
- Thumann, Michael(2001). "Between Appeasement and Coercion: Russia's Center-Periphery Relations from Yeltsin to Putin." *Demokratizatsiya*. <http://www.demokratizatsiya.org/bin/pdf/DEM%2009-2%20Thumann.PDF>. (2012년 1월 20일 검색)
- Watts, Meredith(1996). "Political Xenophobia in the Transition from

- Socialism: Threat, Racism and Ideology among East Germany Youth.” *Political Psychology*. Vol. 17. No. 1, pp. 97-126.
- Wood, Tony(2001). “Putin’s Colonial War, Review of Anna Politovskaya’s A Dirty War.” *New Left Review*, No. 11. <http://www.newleftreview.org/?view=2353>. (2012년 1월 19일 검색)
- Yaffa, Joshua(2006). “Sparring Partner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l./Aug.
- 『동아일보』 . 2000년 6월 14일, 2011년 7월 26일, 2011년 9월 26일.
- 『조선일보』 . 2011년 1월 13일.
- CBS. 2010년 3월 9일. <http://www.nocutnews.co.kr>.(2012년 1월 16일 검색)
- YTN. 2004년 4월 7일. <http://www.yonhapnews.co.kr>.(2012년 1월 16일 검색)
- BBC. 2003년 7월 7일. <http://www.bbc.co.uk>. (2012년 1월 11일 검색)
- Random House. <http://dictionary.reference.com>. (2012년 1월 13일 검색)
- SOVA Center. <http://www.sova-center.ru>. (2011년 12월 29일 검색)
-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 (2012년 1월 19일 검색)
- 러시아 대통령 담화문. <http://archive.kremlin.ru>. (2012년 1월 11일 검색).
- 러시아 대통령 연설문. http://oldsearch.kremlin.ru/kremlin_en. (2012년 1월 11일 검색)
- 러시아 인구조사(2002). <http://www.perepis2002.ru>. (2012년 1월 9일 검색)
- 러시아 통계청. <http://www.gks.ru>. (2012년 1월 12일 검색)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2011년 12월 9일 검색)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2012년 1월 9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2년 04월 05일 |

| 논문심사일 : 2012년 04월 07일 |

| 게재확정일 : 2012년 04월 16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19, No. 1 (2012)

Trends and Causes of Xenophobia in Russia

Sang-Tu Ko

(The Graduate School of Area Studies, Yonsei Univ.)

Ye-Seul Kim

(The Graduate School of Area Studies, Yonsei Univ.)

Russia is infamous for frequent crimes against foreign residents. Especially, since President Putin came to his office, the xenophobia phenomenon has intensified. This paper examined three factors in the Russian case. The economic factor explains that economic hardship intensifies xenophobia. The demographic factor illustrates that xenophobia can be intensified with increasing foreign nations in the country. The political factor explains that xenophobia is often incited by political elite. The analysis of xenophobia in Russia shows the result that the economic factor, specifically a widening economic gap caused xenophobia in the Russian society. And the xenophobia was utilized by political elite for political purpose.

Key words: Russia, Xenophobia, Putin, Elite Incitement Theory, Hatred of Foreigner